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새벽 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디모데프로젝트 3,4단계를 위하여
- 총기사고로 인해 슬픔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2018년도 세워질 일꾼을 위하여
- 제직회(결산)를 위하여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를 위하여(오늘)
-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 크리스마스 칸타타 위하여(12/2)
-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위하여(12/17)
-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믿음의 교회-윤법균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처소교회
- ▶ 밀알선교단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샤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 ▶ 소울싱어즈
- ▶ 작은교회 살리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베네수엘라(정경석)
-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헤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 터키(이성숙/자수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의료사역 Healing 153
- ▶ 아시안 암 환우회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KCN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직영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원로 목사	문창선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헤)	민철기/253-444-8853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곽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한어권 공동체 목사(안디옥/필라델피아/시니여)	유 훈/253-651-9152	사무 안수집사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갠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암슨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안광일/253-335-9101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영아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서무	명숙헨리 토루마즈다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남궁근/253-753-8310	관리	유영숙 장신영 주사랑 윤지우
행정 목사(유스&영여청년)	안재훈/253-365-1105	반주자	권수현 김민희
마더와이즈/유년부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채병관 이한희 정혜원
영아/유치 사역 지원	남궁민희/253-753-8312	1부 지휘자	한종세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헤)	봉숙오글/253-359-7869	2,3부지휘자(음악디렉터)	
협동 목사(사랑부)	장영준/425-444-1669	찬양 인도	
미디어 및 한어청년부	장선범/469-353-3446	통역	
		음향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 정 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 광 일

창립 1975. 11.2

2017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 535-2240 www.tfb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주일성경공부 Sunday Service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한어)	AM 09:30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Korean Adult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장년(영어)	AM 11:00
한어청년	KCM	AM 11:00	영어청년 YAM	PM 01:00
영어청년	YAM	AM 11:00	한어청년 KCM	PM 01:30
학생부	Youth	AM 11:00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금요일 Friday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한국학교 KLS	PM 07: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영어청년부 YAM	PM 07:30
유치부	AWANA	PM 07:00	한어청년부 KCM	PM 07:00
토요일 Saturday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한어청지기모임		AM 07:30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연합예배 오전 10:45

인도: 민철기 목사

설교: 최성은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 21장 “다 찬양하여라”

연합 / TFBC 찬양팀

* 교독문

1부 / 65번 감사절(2)

기도

1부 / 정자엘프 집사

연합/ 오금철, 릭데드릿지 안수집사

봉헌

1부 / 488장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 41장(1절)

특별찬양

연합/ 성탄뮤지컬팀 “Undercover”

성도의교제

연합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공동체소식

성가대찬양

1부/ “감사드려”

연합/ “감사드려”

* 성경본문

시편 46:1-7

말씀선포

2017 추수감사예배

“알고 감사하는가?”

응답찬송

1부 /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봉헌&응답찬송

연합 / “존귀한 어린 양”

축도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찌어다” (시편 105:1-23)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 본문: 마가복음 10:14

1990년 중후반부터 한국 교회에서 다음세대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의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25% 정도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다음세대,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에 전혀 관심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걸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레리 파울러(Larry Fowler)는 그의 책 Rock Solid Kids 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잘못된 세가지 관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관점1.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다.** 어린이 사역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른들은 아이들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2. 어린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관점은 어린이들을 통해 어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관점3. 어린이는 미래다.** 이 관점은 어린이 사역이 모든 교회 내 사역의 중심에 두며,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공간,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관심이 교회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어린이, 그리고 다음세대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막 10: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과 소문을 듣고 부모님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울음 소리, 부모님들의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성화까지 많이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와 성경공부는 방해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부모님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부모님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막 10: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의 성경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단순한 열받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Indignant)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 즉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바로 열마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룰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이요” (막9:37)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함께 이어진 성경구절이 말씀 전에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린이를 바라보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와 다음세대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의 이야기 보다도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좋으셨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부모들을 꾸짖으며 막았던 제자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타코마제일 침례교회 어린이들과 유스 아이들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린이 사역과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린이를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겼고,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어린이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현재, 지금, 어린이들이 하나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간과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 본다면, 우리는 어린이가,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84번가의 아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이들을 위해 VBS, 하베스트 나잇, 크리스마스 뮤지컬, 그리고 어와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이들이 익숙하도록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의 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여겨야 하는 이웃인,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성탄 뮤지컬에, 성탄절 예배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어린이를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2. 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까?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1620년 9월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은 Mayflower 호에 몸을 싣고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긴 고난의 항해 끝에 지금의 미국 동해안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하였지만, 너무 오랜 항해로 지치고, 굶주리다가 질병을 얻어서 결국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의 비극 속에서도 저들은 다음해 가을,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확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단이 오늘날 미국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고, 교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추수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처음 청교도들이 이 대륙에 와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결코 첫 수확이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확은 그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수확이 너무나 적었기에 수확의 결과로만 본다면 결코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적인 감사의 대상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결과만 보고 만족하여 감사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도 아니고, 상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비교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모습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지나치면 기복신앙과 교만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주의적 감사], [상대주의적 감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균형이 깨진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결과주의적 감사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놓고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기복주의로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상대주의적 감사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비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로 늘 자만에 빠지는 것도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적 감사는 절대감사입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자체, 아니 그것 아니더라도 내 존재를 있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신앙의 밑바탕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최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최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고,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TFBC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살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수요찬양예배

Praise Service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민철기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인숙탱 집사

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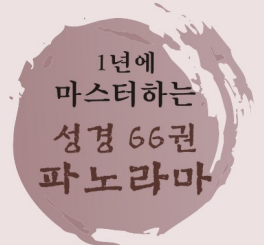
성경파노라마[시가서] “시편”(두번째)

성경 본문

시편 72:18-19

말씀 선포

최성은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정자얼프 집사	1부 민정위드맨 집사
	연합예배 오금철/릭데드릿지 안수집	3부 이종덕 집사
	수요 인숙탱 집사	수요 명숙헨리 집사
보육	영아 이진우, 이선민	영아 곽은화, 선애머레이
	유치 유여진, 임조앤	유치 영자메들링, 인수마일러스
주차장 Parking	권경수, 임성남 (2부) 연합예배	
예배위원 Usher	권태운, 장형식(2부) EM, Rey Dejos	
	안내: (1부) 박선영, 이정엽, 주지희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서, 김정숙, 정수잔슨, 염성옥	
주일오찬 봉사	헌금: (1부) 영분엘리엇, 주지희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광경성, 이호영	
	11/19	빌립보 공동체 김인도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경옥켈리 마을
	11/26	팔라텔피아 공동체 김동혁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정자얼프 마을
	12/03	예루살렘 공동체 박종길 마을, 빌립보 공동체 정수데호스 마을

■■■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7년 11월	2017년 12월
19(오늘)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침례식	2(토) 크리스마스 칸타타
26(주일)	제직회(결산)	3(주일) 전교인 성탄 캐롤링
		9(토) 침례교육
		10(주일) 사무처리회/타코마지역 성탄연합예배
		16(토) 헌아교육
		17(주일) 성탄 뮤지컬
		24(주일) 성탄연합예배/침례식
		25(월) 성탄/성찬 연합예배
		27(수)-30(토) 학생/영어 청년부 수련회
		31(주일) 새가족 격려모임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를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 추수감사연합예배 및 침례식: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고, 침례 받는 모든 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자]: (한어권) 서강호, 최지나, 이마리아, 김지은, 김소연, 민영기, 민정화, 박영호, 이아맨, 권애리, 박경아, 박훈영, 오성현, 정재훈(이상 14명)
(영어권) Jennifer Paras, Christopher Stephens, Maria Isabel Nero, Christopher Diedrick, Harold Haruo (이상 5명) (학생부) Jenis Fehling (이상 1명)
- 장년주일학교 성경공부(말씀묵상, 탐구반):** 오늘 성경공부는 연합예배인 관계로 모임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VIP 종강 모임:** 11/19(오늘) 오후 4:30. 탐임 목사님
- 디모데프로젝트 3단계:** 11/19(오늘) 휴강합니다
-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 12/10(주일)까지 준비바랍니다.** (문의: 각 공동체장)
해외/국내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성탄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마을별로 전해 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마을들은 귀한 섬김 바랍니다.
- 디모데 프로젝트 4단계 11/25(토)**에는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직회: 11/26(주일) 오후 3시.** 2017년도 결산 모임을 가집니다. 모든 제직들은 꼭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칸타타: 12/2(토) 오후 7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포스터, 전단지들을 활용하여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칸타타 후에 리셉션 있음)
- 전교인 성탄절 캐롤링: 12/3(주일) 3부 예배 후에** 교육부, 영어부를 포함한 전교인이 동참하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성탄축하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헌화:**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한개 당 \$10)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캠페인

- 새가족을 위해 주차 멀리 하기
- 예배 10분 전 일찍 오기
- 셀폰은 매너 모드로 바꾸기
- 앞자리부터 채우기(1층부터 앞기)

◇ 생명의 삶 11/19(주일) 주간 ※ 새벽설교는 홈페이지(www.tfbc.org)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짜	본문	날짜	본문	날짜	본문
11/19(주일)	나훔 2:10-13	11/20(월)	나훔 3:1-11	11/21(화)	나훔 3:12-19
11/22(수)	아가 1:1-8	11/23(목)	아가 1:9-2:3	11/24(금)	아가 2:4-17
11/25(토)	아가 3:1-11	11/26(주일)	아가 4:1-5:1	11/27(월)	아가 5:2-6:1

◇ 추수감사절 휴무: 11/23(목) 추수감사절에 새벽기도회는 없으며,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데이케어 오전, 오후 파트 타임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박정희 집사

◆ 교우동정(Compassion) ◆

◇ 새교우

번호	성명	특이사항	인도자
246	멜린다	Website 보시고 오심	
247	김예주	Pierce College 학생	박노옥
248	박주현	Pierce College 학생	박노옥

◇ 중 보 김언년, 정에리오스, Frank Torres, George Guy, 문미훈, 종업페이건, 사영실, 제스민

◇ 파 병 강신재, John Hendershot



TFBC 42 years ANNIVERSARY

Jesus! 그 이름 예수
The Advent of the Messiah
2017 Christmas Cantata
12. 2(SAT). 7:00P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오찬

금 주
다음주

※ 기념일을 맞아 주일오찬(주일오찬비용:\$300)

※ 2017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주차장 및 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정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현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전교인 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797그루/\$956,400

현 현금액: \$923,406.02